



토크는 이야기하다, 투유는 시민(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유는 흐를유 문화의 향기가 흐름을 의미합니다.

- 01 도시재생하면? 공주 원도심
- 02 공주시,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참가
- 03 중학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 04 초겨울 낭만이 넘치는 원도심 행사 현장
- 05 현재를 잇다, 인문학 토크콘서트 개최
- 06 옥룡동 은개방 이야기
- 07 청년대학생들과 함께한 원도심 투어
- 08 공주 도시재생 찾아가는 워크숍 개최
- 09 공주 도시재생 이모저모
- 10 함께하는 이야기



도시재생하면? 공주 원도심

공주 원도심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한때 충청수부도시였던 영광을 뒤로하고, 현재의 공주시는 도시 쇠퇴,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한 채 인구 10만 명을 겨우 지키고 있는 지방 소도시 중 하나이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건 무엇일까? 기반시설 정비, 공동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점을 살려 사업에 녹여내는 이른바 '공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게 다른 도시재생사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일 것이다.

공주 원도심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볼거리가 있고 이와 결합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 1970~80년대 하숙문화 주제의 공주하숙마을, 유관순 열사·나태주 시인·박찬호 선수 등 인물 스토리텔링이 있는 테마가로 골목길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공주 도시재생만의 특징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당기고 있는데 2022년 올 한해만 총 26개 단체 490명이 공식적으로 공주시를 방문해 사업 노하우 등을 견학하였다. 공식적인 방문이 이정도니 실제 원도심을 찾은 방문자는 더 많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방문단체를 위한 원도심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공주 도시재생 이야기 또는 마을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장 투어에 참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041-840-2284)



관련 단체 방문 모습



공주시,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참가

지난 10월 25일~28일 4일 간, 도시혁신 산업박람회가 개최됐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도시공간 재창조와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했으며, 전국 각지 지자체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뽐냈다.

우리 공주시는 산업박람회가 본격 개최된 2019년부터 매년 행사에 참여해왔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동행-공주 원도심 레트로 여행’을 테마로 부스를 구성하였는데, 무엇보다 공주 원도심 거리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을 함께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VR체험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공주 원도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원도심 관광명소 소개는 물론 3D로 제작된 공간 안에서 실제 거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해주었다.

실제 원도심에는 다양한 역사유적지들이 존재하는데 도시재생사업과 어우러지며 방문객을 불러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상권 매출, 창업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¹⁾

이러한 도시재생사업 성과는 수상실적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2019년,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 산업박람회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공주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힘써온 모든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부스 전시 모습

1) 상권정보 시스템(<https://sg.sbiz.or.kr>) 참조

중학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지난 11월 7일(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중학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중학동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실행의 중심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민자조조직으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마을어울림플랫폼 등 공공시설물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역량강화교육과 설립 컨설팅 등 교육 이수를 마치고 이날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관계공무원, 센터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선출과 정관 확정 등 설립에 필요한 안건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상담과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를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중학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창립총회 모습

초겨울 낭만이 넘치는 원도심 행사 현장

늦가을,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인 옥룡동, 중학동, 웅진동에서 이웃 간 온기를 나누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9월에는 이제 어엿한 마을 대표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은개골 마을축제’가 개최됐다. 옥룡동 도시재생 사업구역의 은개골역사공원에서 개최된 행사는 공주를 대표하는 효자 이복을 기리는 ‘이복추모제’와 온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재능경연, 옥룡가왕전, 플리마켓, 작품전시가 펼쳐지며 흥을 돋웠다. 이어 10월에는 중학동 공주북중학교~우체국까지 이르는 제민천 산책로를 이용해 추억의 포장마차 컨셉의 어울림 축제 ‘메아리’가 개최됐다. 먹거리 부스 판매와 함께 지역작가들이 참여한 체험교실, 초청 가수 공연이 함께 했다. 특히 주민이 직접 마을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마을해설 프로그램이 큰 호평을 받았다. 11월에는 웅진동 공산성 일원 고탕공원에서 주말마다 플리마켓, 예술가와 함께 하는 공연과 행사가 이루어지며 주민들은 물론 공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들의 공통점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행사라는 점이다. 아이디어부터 진행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며 다소 서툰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랜만에 어울려 웃고 떠들며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주민분의 가슴에 이날의 아름다운 풍광과 먹거리, 놀이마당이 뜻깊은 추억으로 남았길 바란다.



옥룡동 마을축제



제민천 어울림 축제 '메아리'



현재를 잇다, 인문학 토크콘서트 개최

다시.공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주이야기”

장소: 공산성 영은사 특설무대
대상: 공주시민 및 청소년과 학부모(관객 포함)

공주의 역사는 백제시대를 중심으로 부각되어 보다 다양한 시대의 역사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주는 백제 뿐 아니라 충청의 수부 도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비롯한 수 많은 관내 유적과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통해 공주의 다양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1회차 웅진백제 왕들의 이야기 11월 12일 토요일 14:00 - 16:00 / 영은사(공산성 내) 사회: 정우진 대담: 이현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웅진백제 시대의 개막 문주왕, 삼근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든다 동성왕, 무령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비천도와 패망 성왕, 의자왕	2회차 공주의 기타전란 11월 19일 토요일 14:00 - 16:00 / 영은사(공산성 내) 사회: 정우진 대담: 이해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현종의 난과 공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괄의 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인좌의 난과 공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술민란과 공주
3회차 충청의 수부 공주 11월 26일 토요일 14:00 - 16:00 / 영은사(공산성 내) 사회: 이일주 대담: 김정수 서상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감영도시 / 교육도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주에 밀려든 개화물결 공주의 청년 학생운동과 민족 / 민중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방공간의 공주 1945년 해방과 피란시기의 한국전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안마을 이야기	4회차 공주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12월 3일 토요일 14:00 - 16:00 / 영은사(공산성 내) 사회: 이성현 대담: 최창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략요충지로서의 공주 공산성용 자진 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왜란의 피해상황과 민심동향 왕의 공주 직접 육전과 공주에 주둔한 장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병모집과 군량의 조달 관할사 이영을 비롯한 의병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진왜란 중 공주를 거쳐간 왕과 세자 왕세자 공주파견과 거취

행사 포스터



행사 사진

2021년 선정된 웅진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한창이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웅진동은 총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어 '역사', '문화도시', '도시재생' 등 3가지 콘텐츠를 개발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도시재생을 연결하는 테마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현재를 잇다'란 테마로 진행된 인문학 토크콘서트는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공산성 내 영은사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백제 시대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산성과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개 토크콘서트 형태로 나누었는데 공산성 방문객은 물론, 공주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총 4회에 걸친 행사를 통해 숨겨져 있던 옛 이야기들도 알 수 있었는데, 웅진백제시대 이야기를 포함해 이괄의 난과 인절미 이야기, 근대시기 공주가 충청의 중심지였던 시절 일어났던 해방운동, 학생운동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 분위기를 더하는 공주심포니오케스트라, 공주교향악단 등의 공연까지 함께해 깊이를 더했다.

한편 웅진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인문학 토크콘서트 뿐만 아니라 박찬호기념관 체험키트 개발, 황새바위 순교성지 관련 카툰·전시물 제작, 지역 작가들과 함께 하는 플리마켓 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옥룡동 은개빵 이야기

옥룡동 은개골에는 지명(地名)에 관한 설화가 전해온다. 공산성과 옥녀봉 사이 산골이었던 이곳은 때때로 호랑이가 출몰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한다. 이에 마을을 다스리던 관리는 ‘은(銀)’으로 만든 ‘개(犬)’를 바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며 오늘날에도 이곳은 ‘은개골’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인 이곳 은개골에서 주민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은개 모양을 한 빵, 이른바 ‘은개빵’을 만들어냈다. 도시재생 소규모주민공모사업을 통해 탄생한 은개빵은 지난 옥룡동 마을축제에서의 시범 판매에 이어, 중학동과 웅진동에서 펼쳐진 플리마켓 행사에도 참여하며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팔, 슈크림, 밤잼 등이 들어가는 빵의 맛은 겨울철 간식거리인 붕어빵과 비슷하나 귀여운 모양과 함께 마을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텔링이 더해지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빵을 굽고 판매하는 주민분들은 예상외의 인기에 놀라면서도 연일 이어지는 손님들의 발길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정식 판매도 준비하고 있는 은개빵. 조만간 은개골을 넘어 옥룡동, 공주시를 대표하는 먹거리로 성장하길 바라며 참여해준 주민분들께도 응원의 인사를 전한다.



옥룡동 은개빵



청년대학생들과 함께한 원도심 투어



공주는 예전부터 교육도시로 유명하여 타지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았다. 현재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이유로 공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공주 원도심을 알아보는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금)에 진행된 이번 원도심 투어는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1~2학년 학생들과 함께 했다. 투어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타지역 출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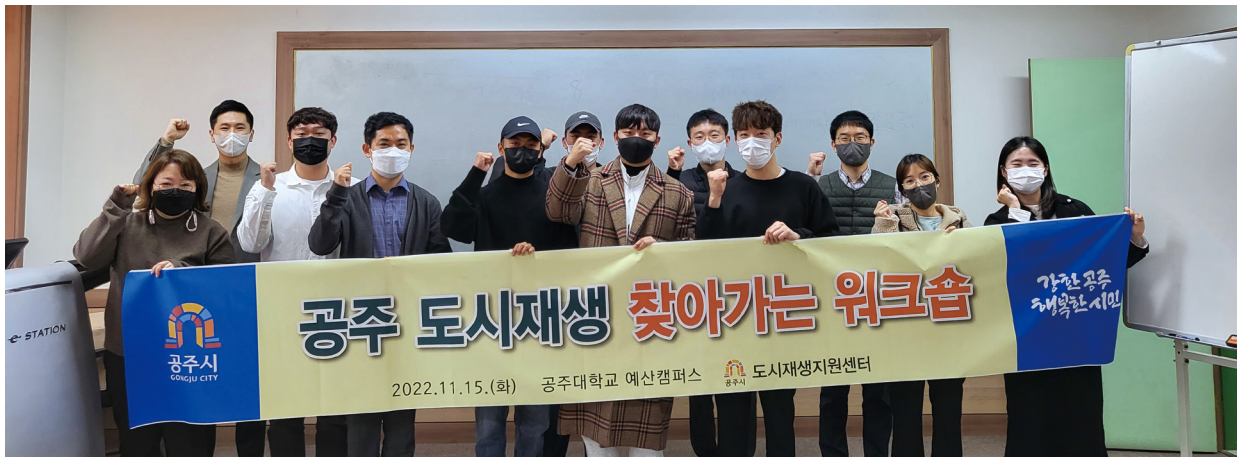
현재 공주에서 생활하지만, 원도심을 둘러볼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학교 인근 원도심 지역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코스로 준비하였다.

공주꽃문학관에서 시작한 투어는 나태주골목길, 감영길, 공주하숙마을, 대통사지, 기독교박물관을 거쳐 봉황큰샘마을, 길담서원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이 지역은 학생들이 평소에도 자주 오가는 곳이었지만, 투어를 진행하며 다닌 원도심 곳곳은 익숙한 듯 낯선 모습이었다고 한다. 투어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투어를 통해 원도심의 색다른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었고, 앞으로는 골목길을 지나다닐때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와 함께한 공주 원도심 투어의 생생한 현장 모습은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스타그램(@gongju_ur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 도시재생 찾아가는 워크숍 개최



단체사진

공주 도시재생 ‘찾아가는 워크숍’이 지난 11월 15일(화)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지역사회개발학과 학생들과 함께했다.

워크숍은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 공주시 도시재생사업 소개 및 원도심 VR 시연, 2부 청년 활동가 초청 강연, 3부 토크쇼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부에서는 김학중 도시재생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의 공주 도시재생사업 소개와 원도심 VR 프로그램 시연이 진행되며 원도심을 보다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년활동가 초청 강연이 이어졌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주)잇다의 전윤숙 이사는 옥룡동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된 투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이야기와 마을과 청년 아이디어를 더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하며 청년 활동을 격려했다. 두 번째 강연자인 (주)퍼즐랩의 박진서 이사는 공주 원도심에 정착하여 청년 활동가가 된 이유, 직접 경험한 청년 활동의 모든 것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Lifeneedz의 최인수 대표는 평범한 대학생이 특별한 대학생이 될 수 있었던 계기와 노력,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며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3부는 자유로운 Q&A 형식의 토크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강연에서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도시재생, 그리고 청년 활동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듯 했다.

공주 도시재생 ‘찾아가는 워크숍’은 청년들의 지역 네트워크 확대 및 원도심에 대한 관심 유도, 청년 활동가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원도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청년 활동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공주 도시재생 이모저모

2022년 9월 14일

하반기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시작

매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총 10개 단체의 사업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이들 10개 단체는 오는 12월까지 원도심 기념품 개발, 문화교실, 거리공연, 작품전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게 된다.

2022년 10월 5일

공주시민대학 마을가꾸기분과 20기 수료식

20기를 맞이한 공주시민대학 마을가꾸기분과 교육이 종료되었다. 이번 교육은 웅진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지역자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수강하였다. 총 14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으며 참여해준 교육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2022년 11월 11일

청주시 도시재생대학 견학단 공주 도시재생 사례지 방문

공주를 방문하는 타 기관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이웃한 충청북도 청주시 견학단이 우리 공주시를 찾아주었는데 그간 공주시를 찾은 기관단체 중 최대규모인 62명의 방문객이 찾아주었다. 견학단은 옛 공주읍사무소, 대통사지, 풀꽃문학관, 나태주 골목길, 잠자리가 놀다간 골목길, 공주하숙마을 등 원도심 도시재생 사례지를 방문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고 갔다.



2022년 12월 13일

도시재생 지역연계수업(공주대 관광경영학과) 성과발표회

공주시는 지역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원도심 문제해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연계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2022년도 2학기는 공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날은 그 최종 성과물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새롭게 조성된 공주시 청년센터에서 발표회가 개최됐으며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특특튀는 아이디어들을 엿볼 수 있었다.





함께하는 이야기

향토문예지 '백수문학' 지령 100호 발간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sejong0623@daum.net



세종시 문학의 뿌리인 '백수문학(白樹文學)'이 마침내 '지령 100호'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문학동인 백수문학회는 68년 전 1955년 10월 조치원에서 지역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태동한 뒤, 이듬해인 1956년 3월 동인지 '백수문학'을 창간하여 지금까지 발간되어온 토종문예지이다.

'지령 100호' 발간은 한국문학사상 그 가치를 평가받을만한 위상을 보여주는 일이다. '백수문학'은 중앙 문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문인들의 창작품을 꾸준히 발표함으로써 지역 문학계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1988년에는 반년간 정기간행물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는 계간화하여 연 4회 발간하는 등 종합문예지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백수문학 지령 100호 발간을 축하하는 행사는 지난 11월 19일 조치원1927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특별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 자리에는 지역 문인, 출향 인사 등 170여 명이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고 발간물 전시와 더불어 축하공연, 시 낭송, 공로상 수여 등 다채로운 행사로써 백수문학의 주옥같은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백수문학회는 세종시 거주 문인, 출향 문인 등 78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문학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수문학회 김일호 회장은 지령 100호 발간사에서 "백수문학의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는 금강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에 세종시뿐만 아니라 한국문단의 자람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백수문학은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이 남긴 업적과 뜻에 따라 믿음직한 후학들이 세세만년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지령 100호에는 특집으로 '세종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회원 16인의 창작시를 비롯해 시, 동시, 수필, 동화, 소설, 특별기고 등이 게재됐다.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SNS 채널 홍보



공주, 특투유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생생한 활동 영상을 다시 보고 싶다면?
유튜브 '공주, 특투유'를 검색하세요!



@gongju_urc


가장 빠른 도시재생 소식을 알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gongju_urc'를 검색하세요!



Urban Regeneration News Letter
공주시 도시재생소식지

제25호
2022.12.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편집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일 2022.12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2층
 전화 041-840-2282~4
 홈페이지 www.gongju.go.kr/urcdo
 YouTube 공주, 투투유